제일영도교회 장년주일학교 1월9일(주일) 오후1:30~2:30

Leadership Conference

제1강

성경적 직분론

강화구 목사

성 경 적 직 분 론

강화구 목사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신다. 현대 교회의 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과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을 간단하게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구약 성경의 직분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소위 전통적인 의미에서 직분은 출애굽 세대로부터 나타난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모았고(출4:29),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도 이스라엘의 칠십 장로가 함께 했다(24:1-18). 광야 생활 중에 모세는 자신의 짐을 나눠 질 직분자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세웠다(출18:13-27).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의 핵심에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있었으며(레8-10장), 선지자라는 직분의 이름 역사 모세 오경에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셨고(창20:7), 모세를 선지자라 칭할 뿐아니라,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신18:18). 그러므로 성경에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기 위해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1.1. 직분의 시작

1) 제사장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은 지성소의 원형으로 나타나고 후일 성막, 성전, 그리고 새하늘과 새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원형적 공간으로 기능한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 표현이 모세

오경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오직 제사장이 성막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과 관련된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경작하고), 또한 성막 전체를 부정한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지키는 직분을 감당했다. 지성소와도 같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즉,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에덴동산에 부정한 것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거룩하게 지키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 왕으로서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그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창1:28).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세상을 통치하는 작은 왕으로 다스리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대표하는 존재로 살게 된다. 세상을 다스리는 작은 왕으로서 아담은 가장 먼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통해 자신의 통치권을 이행했고, 땅을 향해서는 땅을 경작했고, 땅은 아담에게 소출을 내어 줌으로 그의 왕권을 인정한다.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인류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함께 다시 언약을 세우셨으며 첫 인류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 노아는 다시금 아담의 직분을 행하는 인류의 대표가 된 것이다.

2) 직분자로 부름받은 족장들

선지자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곳은 모세가 아닌 아브라함의 때였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실 때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창20:7)라고 말씀하신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방 가운데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도록 세우셨다.

족장 시대는 구약 시대의 직분이 구체적으로 분화되기 이전이었다. 그러므로 가정의 가장이요 족장들은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했다. 족장들은 가문의 머리로서 왕과 같은 존재였으며, 또한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기도 했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도 했다.

1.2. 구약의 직분들

구약에 여러 직분이 등장하지만,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직분은 구약에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 세운 직분들에 국한된다. 신정국가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기초로 나라의 기틀을 세우셨고, 나라가 그 기능을 행하며 성장하게 하셨다.

1) 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권은 일반적으로 주변 열강들이 이해하던 왕정 제도와 달랐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수행할 수 있는 전통적 의미의 전제 군주와는 거리가 멀다. 이스라엘의 왕은 열방의 왕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실행함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뤄가야 한다. 하나님은 다윗 왕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셨다.

2)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다. 공적인 직분으로 선지자 제도가 시작된 것은 사무엘 시대였다. 그는 선지자 학교를 세우기도 했다. 선지자 계보의 대표는 엘리야라고 할 수 있다. 선지자는 왕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 왕과 국가에 대해 비판적인 예언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모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견한다. 이는 전통적인 예언의 의미를 넘어선다. 선지자가 말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모두 이미 과거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적 축복과 저주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미래가 아니라, 말씀이 예견하고 있는 미래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 선지자로서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선포하셨다면, 구약이 기다리던 바로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산 위에 오르셔서 새로운 나라의 율법을 선포하셨다(산상수훈).

3) 제사장

하나님은 제사장을 선택하심으로 성막에서 예배하고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에덴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기본직무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드리며 중재하는 역할이다. 타락한 백성들은 언제나 죄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제사장이 바로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제사장의 근본직무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각 지파 사이에서 거주할 때 그들은 그 백성들 가운데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제사장조차도 사실은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되 일시적으로 죄를 속하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되는 참된 대제사장이 오시길 사모하고 기다리게 된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는 무죄하신 분으로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2. 직분자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른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기름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뜻한다. 구약에서 기름부음 받은 사람들 즉 왕,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뜻하고, 예수께서 바로 이 삼중 직분을 수행하신다는 뜻이다.

2.1. 왕

예수께서는 왕으로서 온 세상 만물과 당신의 언약 백성인 성도들을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신다. 또한 왕으로 우리의 모든 대적자를 이기신다.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신다.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직무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를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왕으로가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 (막10:45).

2.2. 제사장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드리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셨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신다.

예수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하신 것처럼 교회의 직분은 마땅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화목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함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부르심이다(고후5:18-21).

2.3.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한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전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말씀 자체이시다(요1:1-2). 구약의 선지자가 행했던 직분을 예수께서 완성하셨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뜻을 전달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적 의미로서의 선지자는 이 시대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셈이다.

3. 직분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삼중직을 통합하시고 완성하셨다. 예수님은 이 직분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31문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삼중직을 동일하게 감당할 은혜와 특권을 가지게 된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에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삼중직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었다.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제사장의 일을 대신할 수 없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버림받았다. 위대한 왕 웃시야 역시 마찬가지다. 나라가 부강해지자 스스로 교만해진 웃시야는 제사장의 권한을 무시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한센병에 걸려 남은 생을 격리된 채 지내야 했다.

그리스도 즉 기름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기름부음 받은 자들의 직분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즉 삼중직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세상 가운데 행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왕으로서 이 세상을 말씀의 뜻을 따라 다스리며,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의 왕인 마귀를 대적한다. 마지막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다스리게 될 것이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합당한 산 제물로 드리며,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나아가 이웃과 세상을 가슴에 품고 보좌 앞에서 중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세상을 향해 경고해야 한다.

4.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직분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 직분만을 말한다: 장로, 집사. 집사 직분은 그 기원에 있어서 장로(목양과 치리)의 직무와는 별개로 완전히 독립된 직무의 필요에 따라 세워졌다. 그 직무는 별개의 것이지만, 그들의 섬김은 장로의 섬김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4.1. 사도

신약 직분의 시작이며, 예수께서 친히 열두 명을 임명하셨는데, 이들을 부르시기 전 예수께서는 밤새워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가룟 유다의 이탈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 나머지 한 사람을 기도하며 제비 뽑아

채웠는데,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는 사도직이 계승되거나 채워지지 않게 되었다. 사도로 뽑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닌 사람이어야 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여야 했다. 이런 이유로 초대 교회의 사도권은 본질적으로 계승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에 열두 지파가 있듯이, 신약 교회에는 열두 사도가 있다. 이는 구약 시대의 조직적 완전성을 상징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2. 집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초대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급성장하자 교회로 찾아드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필요가 더 증대되었다. 이로 인한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구제를 감당할 수 있는 집사를 세운다. 비록 사도행전 6장에서는 집사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 기능은 명백하게 집사를 뜻하는 것 같다. 하지만,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집사의 직무는 오늘날의 집사 직무와는 어느 정도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집사로 부름 받았던 사람들 중 스데반, 빌립 등은 실질적으로 전도자요 설교자의 역할도 감당했기 때문이다.

4.3. 장로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들이 세워질 때 사도들은 지역에서 장로들을 세운다. 이스라엘에는 구약시대로부터 장로가 항상 존재해 왔다. 그들은 지역의 유지/ 원로의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군들을 세우게 된 것이다. 바울은 이방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그곳에 장로를 세우고 다른 선교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사역했다. 장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권과 말씀으로 통치하심을 대행자로서 실행하는 사람들이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흐름과 같이 오늘날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에 부합되어야 한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그 후에는 궁극적으로 선교사가 아닌 현지의 장로를 세워 자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4.4.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

선지자는 구약에 근거해서 당시 존재했던 직분이었다. 또한 당시에는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목사와 교사는 아마도 현재의 신학교 교수와 같이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목사와 교사는 독립된 두 개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의 직무와 교사의 직무를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5. 교회 직분자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2년 제일영도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셨다. 어떤 자세로 우리의 직분을 수행해야 할까?

5.1. 좋은 신자되기

1) 참된 예배자: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결실해야 한다.

2) 말씀의 사람: 올해 다시 작정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자. 일 년 일 독 다짐하고 묵상하자. 무엇보다 교회에서 제공되는 성경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말씀의 토대를 굳건히 세우자. 제일아카데미를 통한 장년 교육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자. 말씀의 토대를 세우는 일은 1-2년 만에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평생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일이기에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배움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3) 뜨거운 기도의 사람: 말씀과 기도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 5분씩이라도 개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직분자라면 마땅히 자신이 맡은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5.2. 좋은 동역자되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룬다. 어떤 이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한다. 직분에는 상하도, 중요도의 차이도 없다. 부르심의 차이요, 직무의 차이일 뿐,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일이며, 그 어느 것도 불필요한 일이 없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되,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목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직분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다.

쉽게 상처받았다고 섭섭하다고 생각지 말라. 단순하게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만을 요구하지 말라. 직분을 행함에 가장 위험한 일이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직분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야 함을 결코 잊지 말자. 일이 안 되어도 좋으니 양보하고, 마음을 모으는 일을 포기해선 안 된다. 모든 일을 마치 주님께 하듯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대하되 마치 주님을 섬기듯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친 후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을 고백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5.3. 좋은 열매 맺기

직분을 행함은 결국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 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기 위함이다. 즉, 직분을 수행함으로 누리게 되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성숙해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다. 직분을 행함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직분을 통해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더 자비롭고, 더 충성되고, 더 기뻐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6. 결론

하나님께서 2022년 한 해를 기점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바로 회복시키시길 바란다. 한층 더 크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소원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우리는 그 일을 직분을 행함으로 감당하게 된다. 성경적 직분의 귀중함을 깨닫고 직분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 Memo

📖 Memo

📖 Memo

제일영도교회 장년주일학교 1월16일(주일) 오후1:30~2:30

Leadership Conference

제2강

직분자의 경건과 영성

장봉문 목사

직분자의 경건과 영성

장봉문 목사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보편화된 용어 중에 하나는 경건과 영성일 것이다. 그러나 경건과 영성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며, 그 범위도 아주 폭넓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용어의 정의도 발전하기 마련이며,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언어적, 주석적 해석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경건과 영성에 관한 개념적 정의는 간단히 살펴보고, 실천적 범주에서 경건과 영성에 대해 다루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용어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종교적 혹은 관념적 언어에 가깝다. 더욱이 과거에는 경건과 영성이 드러나는 장(場)이 교회나 적어도 신앙과 관련된 것에 한정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 혹은 전인격이 중요시 된다. 요컨대, 신앙과 삶의 일치가 경건과 영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직분자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경건과 영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와 직분자들에게 요청되는 경건과 영성의 또 다른 측면이 있는가? 이 질문을 곱씹으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1.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란 무엇인가?

1.1 야고보서 1: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1)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vs 정결하지 않고 더러운 경건

우리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과 그렇지 않은 경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도 자칫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경건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혹은 자신이 보기에 아주 경건한 삶을 산다고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그 사람의 경건은 정결하지 않고 더러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혹은 전통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경건과 영성의 모습에 그대로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우리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경건의 모습이 정결하고 더럽지 않은 경건의 모습인가? 이 문제는 뒤에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곧 참 된 경건

우리는 이 지점에 와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경건"이라고 하면 예배와 기도생활, 금식하거나 꾸준한 헌금 등 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것이 경건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경건의 첫 번째 표지는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것이다. 물론, 경건이라는 것이 단순히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 당연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참 된 의미는,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쏟는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시편 68편 5절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한다. 더욱이 이사야 1장에 보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도 함께 가지는 것이다**. 그것이 경건을 이해하는 참 된 바탕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내가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거기에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는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음이 경건의 참 된 표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과연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자문을 해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경건과 영성에 대한 소극적이고 좁은 맥락의 정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참 된 경건

이 말씀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적 가치에 따라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그리스도인적 가치가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적 가치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명백히 거짓말, 도둑질, 살인 등과 같이 반-그리스도인적 가치에 저항한다. 그러나 교묘하게 섞여 있는, 그래서 예리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비-그리스도인적 가치에는 무감각한 경우가 더러 있다. 세상에서의 성공, 자녀 교육의 문제, 불로소득을 위한 투자 등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경계선"에 위치한 여러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 우리는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다. 따라서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자신의 가치를 두는 일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이것이 곧 참 된 경건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 과연 나는 비-그리스도인적 가치에도 저항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나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가? 점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2 디모데후서 3:13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 경건한 삶은 곧 박해받는 삶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라는 말은 굉장히 낯선 단어가 되었다는 점이 어찌보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절,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야말로 경건한 삶이었다. 자신의 목숨과 안정을 걸고 하나님을 신앙했고, 그걸 위해 무한한 포기와 박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러다가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라는 위치에 오른 이후, 가파른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황금기를 맞이한 시점이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타락의 길에 들어서는 출발점이 되고 만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시대의 가치에 저항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표면적 투쟁은 아닐지라도, 개인의 삶 가운데 처절한 저항과 싸움,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회적 실패라는 타이틀이 따라 다닐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저항과 박해보다는 이 사회의 주류로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오르려는 추악한 경향을 보게 된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간증”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간증이라는 것은 기독교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는데 한몫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늘 기독교 엘리트주의, 혹은 승리주의에 빠져 있는 간증자들과 마주한다. 하나님을 신앙했더니 받았던 세상의 복,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이루어졌던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명예로운 자리, 성공과 맞물려 “나그네의 삶”과 “박해”라는 기본적 가치를 상실하게끔 만들고 있다. 우리는 차라리 박해받은 삶을 간증해야 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지키다 실패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가? 내 신앙이 그저 복을 받는데만 머물러 있지 않은가? 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2.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무엇인가?

> 종종 거룩한 실천이나 영적 습관으로 묘사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기도와 금식, 성경 읽기와 자기 성찰에 전념할 것을 권면한 청교도들의 삶을 들 수 있다. 개혁파의 경건은 성경 중심적이며 선물로서 주어진 신앙과 은혜에 뿌리를 둔다. 경건은 개인의 거룩함에서부터 사회적 참여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경건의 표현방식을 나타낼 수 있지만, 참된 신앙의 열매로서 실천적인 경건의 필요성을 옹호하는데 한 목소리를 낸다.[1)]

⇨ 경건의 두 기둥

2.1 선물로 주어진 신앙과 은혜에 뿌리를 둠

→ 자칫하면 경건은 개인이 노력한 결과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개혁주의에서 언제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바탕으로 실천적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먼저 주어진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 사랑과 감격이 없는 한, 모양 뿐인 경건에 이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경건생활, 영성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을 소유해야 하며, 이 깊이의 여하에 따라 우리 경건의 깊이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2.2 참된 신앙의 열매로서 실천적 경건

→ 성경은 "열매"를 굉장히 많이 강조한다. **열매의 본질은 수고로움에 있다**. 특별히 참된 신앙은 마음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반드시 삶의 열매로 맺혀지며, 삶의 결과물로서 우리 눈에 측정되어야 한다.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할 것이고, 기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타인을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희생과 포기하는 일이 그들의 삶에 꾸준히 드러나야 한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한다고 한들, 그 사랑의 표현이 없다면 사랑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1) 켈리 M. 캐픽, 웨슬리 벤더 럭트, 『개혁신학 용어사전』, 17~18.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적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한다. 따라서 경건을 논할 때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우리 삶에서 피어나고 있는 "신앙적 열매"라고 할 수 있다.

3. 직분자의 영성이란?

⇨ 영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 2가지

3.1 사랑(열망)

→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2)]

미국 기독교 철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제임스 K. A. 스미스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그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국내에서는 『습관이 영성이다』로 번역됨). 우리가 직분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영성의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혹은 존 파이퍼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사랑 혹은 열망이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관계가 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답이 나온다.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에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내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민낯"과 마주해야 한다**.

우리가 더 높은 자리를 열망하는 것도 다 각자의 이유가 다를 수 있다. 어떤 이는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서 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과거의 결핍이 높은 자리를 얻음으로서 해소하라는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성공함으로써 스스로의 존재를 빛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움직이게끔 하는 마음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동력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2) 제임스 K. A. 스미스, 『습관이 영성이다』, 10.

3.2 닮아감

→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닮아간다.[3)]

짐 와일더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간다**고 표현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법칙이 적용된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 두 사람이 결혼하면 서로를 닮아가듯, 그것이 외모든, 행동이든, 성격이든, 성향이든 닮아감의 핵심은 사랑에 있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바울 사도는 신약성경 가운데 "본 받음"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한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다. 우리 신앙의 경건과 영성을 위해서 단연 핵심은 하나님을 본 받음, 즉 하나님을 닮음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본 받는 일이 단순한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마음을 담아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상, 닮음과 본 받음은 우리 삶에서 피어나지 못하는 열매다. 따라서 짐 와일더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닮아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우리가 영성이라는 실체적 결과물을 따져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실체적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풍성한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며, 본 받는 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직분자의 영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4. 우리의 영성 Check List

이 항목에서는 우리의 영성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아래의 항목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경건과 영성이라는 것이 결코 소위 영적 세계에서만 통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세계에서, 다시 말하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영성이 아닌 실체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영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예배와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그 근본에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

3) 짐 와일더, 『달라스 윌라드와의 마지막 영성 수업』, 11.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매, 수고로움, 하나님을 본 받음과 닮음을 이뤄내고 있는가? 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지만, 직분자로서 누리는 기쁨이 줄어들거나 없다.

② 어쩔 수 없이 혹은 억지로 맡은 일을 감당할 때가 많다.

③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익숙하다.

④ 회개를 요청하는 성경 말씀이나 설교는 읽거나 듣기에 거북하다.

⑤ 말씀이 삶의 중대한 변화를 요청할 때, 회피한다.

⑥ 신앙생활 가운데 타인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⑦ 급하거나 여유가 없을 때, 하나님이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 있다.

⑧ 자기보다 월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만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인다.

⑨ 우리 삶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으로 양분한다.

⑩ 일상 속에서 영성훈련을 단순화(예배, 기도로 한정)하거나 포기한다.

⇨ 10개 중에 내가 해당하는 개수는?

⇨ 가장 동의하는 내용은?

⇨ 우리가 이런 항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편은?

5. 영적 성장 및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

5.1 하나님을 "생각만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4)]

→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을 생각만 하는 삶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의 차이를 "**관계적 차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분석적으로만 알지 말고, 관계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알고, 함께 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달라스 윌라드에 의하면, 관계적 앎은 **하나님과 공통적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습관은 "**질문 던지기**"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 변론이라고 사용된 말은 "야카흐"인데, 이것은 단순히 논쟁하자는 의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공통적인 마음을 갖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거기에 응하는 우리의 자세,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삶의 기초를 놓게 된다. 우리가 이 초대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영성이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5.2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세우기

→ 우리 삶에 실제적 목표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단기적으로 당장의 승진이나 시험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며 차근차근 목표에 따라 삶을 경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삶의 목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존재하는가? 아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

4) 짐 와일더, 『달라스 윌라드와의 마지막 영성 수업』, 36~38.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신앙 훈련 방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뭔가 하지 않는 영성 훈련이 있고, 뭔가를 하는 영성 훈련이 있다.

<뭔가 하지 않는 훈련>

고독(혼자 있기) / 침묵 / 금식 / 희생

<뭔가 하는 훈련>

성경공부 / 예배 / 기도 / 교제 / 고백 / 축하

결국 이런 의도적 노력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의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의존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목표"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5.3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5)]

→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에 그 너머의 삶을 볼 수 있게 된다. 특별히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 삶은 힘든 것이다.
②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③ 내 삶에 찾아오는 슬픔과 상실을 껴안아야 한다.
④ 소유욕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올바르다.
⑤ 당신은 언젠가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경건과 영성과는 멀어지기 시작한다.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신뢰를 반드시 수반한다. 내 삶이 내게 주신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5) 피터 스카지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90.

내어드려야 한다. 때로 슬픔과 비극, 어려움과 고난이 밀어 닥치더라도,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끊임없이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통제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포기하고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는 경건과 영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5.4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람과 함께 성장하기

→ **영성과 경건의 성장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름 아닌 공동체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부름받지만, 공동체로도 함께 부름을 받는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뿐만 아니라, 함께 경건하게 살아야 할 삶의 목표까지도 함께 공유하게 된다. 특별히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공동체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기 마련이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을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을 닮고 본받아 살아가려는 우리의 참된 욕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참된 삶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서로를 독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의 비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영적 허세가 없는 진솔한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함이 마땅하며, 서로의 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돌봐줄 영적 책임을 가진다. 서로의 짐을 지며, 서로가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이자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개인주의적 영성을 벗어던지고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

6. 마무리하면서

기독교 영성가 중에 한 명인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영성수업”에서 영성 훈련에 첫 걸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권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하나님 없음, 혹은 가장자리로 밀려난 하나님을 마주하는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고 “가까이 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열망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며, 우리 삶을 점검하고 돌아서려는 개인과 공동체의 노력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열매가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맺혀지게 될 것이다. 2022년을 새로이 맞이하면서 직분자로 부름 받은 우리와 우리 교회가 경건과 영성에 있어서 진일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교회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 Memo

제일영도교회 장년주일학교 1월23일(주일) 오후1:30~2:30

Leadership Conference

제3강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직분자

김창환 목사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직분자

부제: 장로 / 집사 / 권사에 대하여

김창환 목사

들어가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롬12:5[6]).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한 교회를 섬기며 한 분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직분을 따라 교회를 섬긴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나의 직분에 대해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의 직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함께 살펴보며 서로를 이해함으로 주의 몸 된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고자 한다.

Ⅰ. 장로

1. 장로직의 유래

가. 구약성경

1) 장로라는 단어는 창세기50:7(자켄: זָקֵן)에 처음 등장한다.

2) 이후 모세(24:1[7])의 출애굽 시대와 왕정 시대(왕하19:2[8])에도 있었다.

나. 신약성경: '장로' 65회 등장

1) 산헤드린 소속 평신도 대표로서의 장로

2) 각 지역 회당 대표로서의 장로

3) 기독교교회 지도자로서의 장로

가) 예루살렘 원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장로(행11:30[9])가 있었다.

나) 바울이 세운 이방교회 지도자들로서의 장로(행14:23[10])가 있었다.

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24명의 천상의 장로들(계7:11[11])이 있다.

---

6)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7)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8)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셉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9)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0)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다. 교회의 역사

1) 칼빈의 제네바 치리회

라. 장로직(제도)의 의의

구약의 장로직(제도)이 신약교회에 의해 계승되었다. 중세교회의 폐단인 교황정치와 감독정치의 폐단은 장로직(제도)으로 개선이 된다. 한편 회중정치는 지나치게 평신도 위주의 정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때 장로직(제도)은 균형 잡힌 이상적인 교회의 한 정치 형태라 볼 수 있다.

2. 장로의 직무

고신총회 헌법 제66조에는 장로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2)]

①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②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③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④ 교인을 권면하는 일

⑤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⑥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

⑦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⑧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이를 분석해 보면 장로의 직무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교회를 위한 직무와 교인을 위한 직무이다.

가. 교회를 위한 직무: 감독인 장로

신약성경은 장로를 감독이라 부른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급히 가기 위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부탁한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에피스코포스, ἐπίσκοπος)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행20:38)”라고 말한다. 장로가 수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

11)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헌법, 총회출판국, 2015, 280

직무가 바로 '감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의 감독은 교회를 잘 관리하여 교회가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목사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협력자로서 봉사하며 교회의 제반 행정을 돌아보고 섬긴다.

나. 교인을 위한 직무: 교인들을 영적으로 파수하는 장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벧전5:1[13])라고 표현하면서 그 장로의 역할이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장로는 양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양 떼를 치는 자이다. 그렇기에 마지막 날에 목자장 예수님께 그 직무에 대해 보고 해야 한다. 장로는 양 떼가 목자장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르도록 해야 한다. 장로인 자신이 먼저 목자장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야 한다. 그 때 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고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얻으며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양 무리를 치는 일은 특별히 심방(Home Visit, 가정방문)을 통하여 구체화 된다. 교회사적으로 제네바의 개혁자 칼빈은 장로를 세워서 성찬식이 있을 때에 각 가정을 심방하게 했다. 이 후 개혁교회에서는 장로의 심방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장로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신자의 삶에서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방한다. 이 때 각 가정에서는 장로의 심방을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받아야 한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클라스 스킬더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의 마지막에서 '장로의 심방이 세상문화를 변혁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13)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3. 장로직의 어려움

가. 목사의 대변자, 성도의 대변자이다.

나. 교회와 교인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

다. 공도 과도 모두 장로를 향한다.

라. 때로는 속이 상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4. 장로의 축복

가.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살전5:12-13[14]).

나. 배나 존경을 받게 된다(딤전5:17[15]).

다.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벧전5:10[16]).

Ⅱ. 집사

1. 집사직의 유래

가. 구약성경

직접적으로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율법에는 이웃에 대한 구제나 봉사를 의무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리고 이런 정신이 신약에 이르러 사도들을 통하여 집사직으로 제정되었다.

나. 신약성경

(1) 사도들이 율법에 나타난 구제와 봉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신약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세웠다(행6:3[17]).

---

14) 12.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5)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16)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7)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2. 집사의 직무

고신총회 헌법 제7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원리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성경적인 교회관을 확립하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라는 인식을 가질 때 건물 안에서의 나의 위치가 의식이 된다. 성경은 부름받은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모퉁잇돌로 하는 교회라고 가르친다(엡2:20[18]). 그렇기에 교회는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며 높아지는 곳이다. 교회에서 우리는 한 지체이며 한 가족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가 주인 되신 주님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 서 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관을 가슴에 품고 함께 종의 자리에서 봉사하자.

나. 평신도의 자리를 회복하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동시에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 제자들의 모임'이다. 우리 모두는 소명 받은 사역자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부르셨다.

다. 아름다운 목회 협력자가 되라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누구나가 그 뜻을 안다. 가정,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는 의미이다. 특히나 그 가정에서 화목해야 할 대상은 부부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가정의 주인공 아담과 하와는 일방적인 관계가 결코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됨과 완전함을 이룰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 가정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목회자와 장로, 권사, 집사를 세워주셨다. 이들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

18)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은 목회자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 온 교인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별히 집사 직분자들의 역할이 크다. 또한 집사는 목회자의 협력자인 동시에 다른 지체들의 협력자이기도 하다. 집사는 보수도 받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하고 충성한다. 그렇다면 주의 일을 섬기면서 행복해야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서로가 협력의 태도를 가질 때 가능하다. 교회 내의 다른 부서, 다른 직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협력해야 한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자가 된다. 더 즐겁게 나의 부서를 섬길 수 있다. 나의 불편을 안고 협력해 준 그 집사님이 후에 나의 부서에서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

라. 덕스러운 언어로 공동체를 세우라

심리학자 J. 레이는 “말은 마음의 초상이다”라고 말한다.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영성을 대변해 준다. 집사의 말 한 마디가 목회자나 다른 교인들의 가슴에 응어리져 있는 아픔과 상처를 한꺼번에 씻어 내릴 수 있다. 말에 관한 말씀 중 잠언의 한 구절을 보자. “20.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언18:20-21). 사람은 말의 열매로 만족하게 되며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꿈에서라도 부정적인 말을 일삼지 말아야 한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고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진다. 말은 불과 같다. 나의 작은 부정적인 한마디가 내가 속한 위원회, 공동체, 그 섬김의 기관을 태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러나 반드시 말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래서 행복한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해야 한다. 누군가에 대해서 들은 말을 타인에게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들은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소문의 당사자, 말하는 나, 나에게 들은 사람이 다 믿음의 손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집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직분이다. 덕스러운 언어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자.

3. 충성된 집사가 받는 축복

가. 경건한 자녀를 두게 된다(행21:8-9[19]).

나.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며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딤전3:13[20]).

4. 모범적인 집사들

가. 순교자 스데반(행8:58-60)

나. 전도자 빌립(행8:5)

다. 진실한 두기고(엡6:21, 골4:7)

Ⅲ. 권사

1. 권사직의 유래

가. 권사란 직분이 신약성경의 초대교회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아직 조직화 되지 않은 상태였다. 초대교회에 비록 권사라는 직분의 호칭은 없었을지라도 오늘날 현대교회의 권사와 같은 역할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여인이 있었다. 바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뵈뵈라는 여인이다. 그녀는 바울을 도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돕는 후원자가 되었다.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던 여인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녀를 자신의 심장과 같이 소중하게 여겼고, 로마교회가 그녀에게 합당한 예절을 갖춰서 정성껏 맞이해 주기를 부탁했던 것이다. 권사란 바로 뵈뵈와 같은 사역을 수행하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권사의 성경적 증거. 로마서12:8 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파라칼레오, παρακαλέω)는 권면하다, 위로하다, 화해시키다로 번역되는 동사이다. 그리고 이 단어의 명사형 파라클레시스(παράκλησις: 위로, 간청, 권면)를 번역한 말이 권사이다.

---

19) 8.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9.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20)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2. 권사의 직무

고신총회 헌법 제8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심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이러한 원리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따뜻한 치유자(상담자)가 되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고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나 이 땅에서는 미완성의 존재로서 주님의 재림의 날 이루어질 완성을 향해 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상처를 가진 사람이 교회로 찾아 오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내에서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런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치유 방법이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다. 위로해주고 감싸주며 격려해 줄 때 상처가 치료된다. 큰 슬픔, 큰 고통을 당한 사람 곁에 있어 주는, 말 없이 같이 울어주는 권사가 필요하다. 함께 고통을 나누는 마음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세상이 말하는 학위와 자격이 아니어도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처 입은 자들에게 다가설 때 따뜻한 치유자, 따뜻한 상담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이셨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상처를 경험한 권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상담자로 사용하기 원하신다. 동병상련이라 했듯이 동일한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의 손길 자체가 위로와 치유가 된다. 그렇기에 인생의 쓴맛을 많이 경험한 권사라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할 그릇일 수 있다. 의사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따뜻한 치유자/상담자로 귀하게 쓰임 받는 권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것이다.

나. 교회를 세우는 구역장이 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은 유모(살전2:7[21])와 아버지의 마음(살전2:11[22])으로 사역했다고 고백한다. 여기서 유모는 어머니를 말한다. 바울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돌아보고 섬겼다. 한편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양육하고 훈련했다. 우리가 구역을 섬길 때 유모와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들을 사랑하되 엄격함도 가져야 한다. 구역장과 구역원은 서로가 서로에게 화롯불과 같다. 하나의 장작은 금방 꺼져버린다. 불도 약하다. 얼린 손을 데우기에도 불충분할 뿐더러 솥을 걸고 음식은 더더욱 할 수 없다. 그러나 장작이 모이면 오래 가고 불의 강도도 달라진다. 한 명의 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얼어붙은 몸을 녹인다. 커다란 무쇠솥을 걸고 수십 명이 먹을 음식도 만들 수 있다. 구역장이 구역원을 돌볼 때 구역원은 위로받으며 세워진다. 그리고 구역장의 헌신으로 구역원이 힘을 내고 자라갈 때 하나님은 구역장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며 그 구역원을 보며 구역장은 보람을 얻는다. 구역활동을 통해 교인들은 소속감을 갖게 되고 교회와 다른 지체들에 대해 애정을 갖게 된다. 구역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구역장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맛볼 것이며,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풍성히 받을 것이다.

다. 행복의 오솔길을 찾아가는 권사가 되라

신앙은 신비의 세계이다. 저 밑으로 낮아지는 자리에서 지극히 높아지는 길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다(빌2:8-9[23]). 눈물과 행복은 극과 극의 단어이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가 병립할 수 있다. 직분자는 십자가를 지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행복하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권사의 직분으로 섬길 때 성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지만 그 길에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

21)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22)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23) 8.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환희와 행복이 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신비롭다. 이 행복의 오솔길에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다. 가정에서 어머니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말 한 마디로 남편의 기를 세워 줄 수 있고, 아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 권사는 교회에서 어머니의 위치에 있다. 그렇기에 권사의 격려와 칭찬이 울려 퍼지는 교회는 절로 신이 나고 흥이 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권사는 온 교인의 귀감이 되며 주님께도 큰 기쁨이리라!

나가며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직분자가 서로를 잘 이해하며 협력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세상은 교회를 보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제일영도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더욱 힘 있게 증거되며 영혼구원의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행복한 직분자로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

🕮 Memo

제일영도교회 장년주일학교 1월30일(주일) 오후1:30~2:30

Leadership Conference

제4강

직분과 은사

주정환 목사

은사와 직분

주정환 목사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시되, 성령을 통해 각각의 은사들을 구별하여 주셨다. 따라서 직분을 맡은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말씀을 근거로 살피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은사의 개념과 출처는 어디인가?

1-1. 은사의 개념

은사는 헬라어의 복수 명사 카리스마타를 번역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나 행동을 통해 가시적으로 표출된 것을 일컫는다. 이 단어의 단수형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선물, 또는 특별한 은총이나 자비를 칭하는데 쓰였다. 복수형은 주로, 특별한 봉사를 위해 신자에게 주어진 성령의 갖가지 은사들을 일컫는데 쓰였다.

은사들은 구약(욜 2:28)과 그리스도(막 13:11; 요 14:12)에 의해서도 약속된 바 있으며 사도행전 2장에 명시된 오순절에 성취되었다.[24)]

은사와 소명과 봉사는 서로 의존 관계에 있으며 용어상 부분적으로 서로 교차 관계에 있음이 드러난다. 고린도전서 12:4-6에서는 은사가 봉사와 바뀌어 있고, 로마서 11:29와 고린도전서 7:7,17절에서는 소명과 바뀌어 있다.

봉사의 전제가 되는 것이 은사요 소명이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단순히 기이하고 예외적이며 기적적인 능력으로 보지 않고 가장 넓은 의미로 보면, 그것은 은혜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다.[25)]

---

24) 데릭 윌리엄스, 「IVP 성경 사전」, 이정석 외 역, (서울 :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2), 448
25) 한스 큉,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경북 : 분도출판사, 1978), 103

1-2. 은사의 종류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은사에 관한 목록들은 대략 네 군데(롬 12:6-8; 고전 12:4-11, 28-30 엡 4:7-12; 벧전 4:10-11)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부분에서 열거된 은사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모든 종류의 은사를 열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은사들은 대개 두 범주로 분류된다. 말씀의 사역을 맡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들과 교회의 봉사를 위한 은사들이다.[26]

아래표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사에 관한 목록들을 도표화한 것이다.

고전 12:8-11	고전 12:28	롬 12:6-8	엡 4:11	벧전 4:11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하는 일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예언 섬김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 베품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들 교사들	말씀 전하는 것 섬기는 일

1-3. 모든 은사는 성령을 통해 부여된다.

모든 은사는 개인과 공동체의 활동을 수행할 능력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부름이다. 교회 내에 주어지는 다양한 은사들 속에서도 통일성이, 자유 속에서도 질서가 보존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이 일치를 낳고 질서를 낳기 때문이다. 은사는 물론 여러 가지로 나뉘어 베풀어지지만 영은 같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자에게 영을 드러내는 은사가 베풀어지는 것은 교회의 공익을 위한 것이다.[27] 모든 은사는 성령을 통해 부여되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의 표현이다.

26) 데릭 윌리엄스, 「IVP 성경 사전」, 448
27) 한스 큉, 「교회란 무엇인가」, 103

고전12: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결론적으로 은사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며, 은사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2) 직분자에게 은사는 왜 주어지는가?

2-1. 은사는 봉사를 위하여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의 교회와 세상 중에 하시는 일을 위하여 직분을 정하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직분의 뿌리는 목자장(벧전 5:4)이요 큰 목자(히 13:20)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직분적 사역은 섬김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했다.(히 3:2) 이로써 그는 직분과 직분자에게는 섬김이 목적이요 존재 이유임을 십자가에서 증거하셨다. 따라서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의 이름으로 일해야 한다.[28]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사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며, 그리스도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은사 공동체이다. 또한 은사는 봉사를 위하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다시말해 봉사의 전제가 되는 것이 은사요, 직분자와 성도에게 주어진 은사는 신약교회 질서의 기본 원리이다.[29]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부여할 때는, 오직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에게 보다 깊게 그리고 보다 큰 사랑으로 헌신할 때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직임이 있다. 즉 서로 봉사하며 섬겨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이다.[30] 따라서 은사를 소유하는 일은,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라고 하는 이중적인 원리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들은 본질적으로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개개인에게 주어짐을 기억해야 한다.[31]

---

28) 유해무, 「개혁교의학 : 송영으로서의 신학」, (경기 :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0), 568
29) 유해무, 「개혁교의학 : 송영으로서의 신학」, 551
30) 데이빗 왓슨,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 : 두란노서원, 1987), 145
31) 싱클레어 퍼거슨, 「IVP 조직신학시리즈 : 성령」, (서울 :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9), 241

2-2. 은사는 교회의 건설을 지향한다.

- 고린도전서 14:12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 에베소서 4:12-13

12 :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 :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을 근거로 살필 수 있듯이 은사는 교회의 건설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은사를 통해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서로서로 사랑함으로 봉사하여 주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

3)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가?

3-1.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고전 12:7). 특별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전 12:31)는 권면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요긴한 은사를 더 우선적으로 구하라는 말이다. 개개인이 자신에게 더 큰 은사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개인적인 야망을 부추기는 권면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만의 유익보다 교회 전체에 더 큰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라는 말이다.[32]

32) 박영돈, 「성령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서울 : SFC출판부, 2008), 290

3-2.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라

그리스도께서 개개인과 직분자,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는 그분 자신이 완벽하게 본을 보이신 것들이다. 전하는 자가 있었다면 그리스도였으며, 교사나 다스리는 자, 관리하는 자나 종이나 돕는 자나 주는 자가 있었다면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모든 은사의 완벽한 실례이자 본보기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그분 자신이 본을 보이신 아름다운 은사이기 때문이다.[33]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할 때 그 모양과 방향이 그리스도를 닮았는지, 그리스도를 향하는지를 반드시 염두해야 한다.

4) 은사를 사용하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

4-1. 개인을 위해 은사를 사용해선 안된다.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리해야 한다.(고후 5:20) 따라서 직분자들은 결코 자기 이름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거나 말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그는 절도요 강도며(요 10:1), 삯군이다(요 10:1).[34]

모든 직분자들은 각자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음악의 은사, 관리 행정의 은사, 남을 환대하는 은사)을 누릴 수 있다. 그러한 은사들이 하나님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자기 과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은사들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성취를 위해 사용한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을 빼앗게 된다. 하지만 은사들을 '그의 것'으로 생각하고, 성령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섬김이 된다.[35]

---

33) 존 맥아더, 「MNTC 맥아더 신약주석 : 에베소서」, (경기 : 아바서원, 2021), 240
34) 유해무, 「개혁교의학 : 송영으로서의 신학」, 568
35) 데이빗 왓슨, 「제자도」, 145

4-2. 사랑의 열매가 없는 은사 사용은 불법이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분명 성령의 산물이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순종의 삶이 현저히 결여된 이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설면서도 여러 가지 은사를 발휘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였다.

바울은 이들을 '신령한'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고 꾸짖었다(고전 3:1-3). 우리 주님께서도 이러한 불행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셨다(마 7:12-23). 주의 이름으로 큰 기사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수고를 하였어도 **열매**가 없으면 그들은 "불법을 행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성령을 거스르는 영적 불법을 행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다.

4-3. 직분자들은 은사를 구해야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 : 목사가 사랑만 가득하고, 설교와 가르침의 은사가 없다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성품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사라고 할 수 없다. 은사를 통해서만 사랑의 소원과 목표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깊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섬김의 은사가 풍성해야 한다.[36)]

-> 따라서 직분자들은 역할에 맞게 은사 주심을 감사하며, 직분에 맞는 능력을 겸비해야 함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신 분께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한다.

예 : 권사가 성경말씀으로만 권면하고, 위로와 격려의 마음이 없다면?

심방을 통해 아무리 바른 말씀으로 권면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시험이 가득한 성도에게는 사랑과 위로를 건네어야 한다.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할 때,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직분자들은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36) 박영돈, 「성령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286

5) 결론

5-1.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한 성령이 행하셨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자랑할 수 없다. 그저 성령으로부터 은사들을 받을 뿐이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어야 한다.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영적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 서로를 통해 서로에게로 운영된다. 성령이 주신 은사로 우리는 겸손히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한다.

5-2.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인 우리에게 다양하고 다르게 은사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베푸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 온전히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타내는 방식으로 교회에 성령을 부으셨다. 저마다 다르지만 은사를 가진 모든 직분자가 교회에 필요하다. 서로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5-3.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영적 은사를(고전 12:27-30) 열거한 다음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했다. 로마서에서 그는 은사에 대한 논의를 이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언급했다. 에베소서에서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6)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은 정황을 살필 때에 하나님에 의해 수여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은사의 목적은 분명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다.

Memo

2022. 1. 9. ~ 30.

Leadership Conference

(직분자 세미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일영도교회